

형태변형 원리를 적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및 의미 연구*

A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in Fashion Design

Applying The Principles of Shape-Transformation*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권기영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

Full Time Lecturer : Gi-Young Kw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변형의 조형적 의미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형태변형 기법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ed fashion design based on the principles of visual design. Wucius Wong classified the kinds of transformation techniques as internal variation, external variation, extension, superimposition, transfiguration, dislocation, and distortion, which create and modify the shape. And the kinds of shape grammar for transformation are rule deletion, rule addition, and rule transformation, which are applied to interpretate for the change of wearing, the specialization & development of clothes, and the avant-garde styles in subculture groups. The formative meanings of the transformed fashion design are multi-transformation with complexity, formal beauty pretending confusion, and the basis for new trend.

주제어(Key Words): 형태변이(shape variation), 형태문법(shape grammar), 변형(transformation),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

I 서론

현대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발명품들의 디자인 또한 지난 수세기 동

안 보아왔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가 간 이념 분쟁으로 인한 냉전시기, 그리고 60년대 이후 여성 해방운동과 인권운동 등 정치적·사회적 변혁의 물결은 인간의 사고

Corresponding Author: Gi-Young Kw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22 Fax: +82-53-950-6219 E-mail: gykwon@knu.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북대학교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와 행동 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이를 반영한 디자인의 변화 역시 인간의 외모는 물론 삶에 대한 가치기준까지 바꾸어 놓았다(경노훈, 윤민희, 1999: 15).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형태를 변형하는 이유는 새로운 심미적 미의 발견을 위한 디자인 창조에 있다.

조형 형태를 창출해내는 조형 표현 활동은 회화·조각과 같은 순수조형과 건축 공예 디자인 등과 같은 실용조형이 있다.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의 연구는 형태, 색채, 재료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잘 구성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심홍, 1986: 32). 조형 활동은 아름다움과 쓰임새를 추구하는 인간 정신 활동의 역사로서 고대 그리스 이전부터 문화사와 미술 공예의 양식사로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왔다.

일상생활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데지그나레(designare: 지시, 계획하다)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을 시각적인 형태나 제품, 패션, 편집, 광고, 영상, 인테리어 디자인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 생각하지만, 광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세심하게 설계한 계획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는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스케치나 안락한 일상생활을 위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드는 모든 조형행위를 말한다(경노훈, 윤민희, 1999: 8). 패션 디자인 또한 산업예술 디자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형 과정으로서 거기에 사용되는 조형원리와 응용기법은 패션에서도 함께 사용되어진다.

오늘날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조형 실험을 통해 신체를 둘러싼 의복형태를 과장, 축소,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하는데, 이들 전위적이고 해체적인 여러 패션들은 변형에 의한 것으로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분절·파편화된 신체는 새로운 미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에서의 조형원리가 복식에도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인체가 지닌 본연의 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킨 시대적 미의식과 개성을 나타내는 현대 패션 디자인을 변형원리를 토대로 조사 분석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미적 기준의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살피고 앞으로의 디자인 개발에 일조를 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조형원리와 건축론 등 다양한 예술 관련 문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잡지에서 보이는 다양한 디자인들 중 형태변이론과 변형형태문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기에 적절한 사진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변형의 정의

변형은 어떠한 형태를 규칙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

는 것으로, 미술사, 생물학, 인류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지게 되는 총괄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다. 이는 실체주의적 사고에 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개념들은 다양하다. 단 중요한 것은 변형에 관련된 상당수의 용어들이 '생물학적', '진화론적' 분야의 용어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돌연변이설(mutationism)', '변형적 진화설(transformism)', '기형(anamorphosis) 등이 해당된다.

변형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변이(變異, variation)는 생물학 용어로서 같은 종 또는 하나의 번식 집단 안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느 한 형질의 질적·양적 차이, 또는 세포·유전자 레벨로서는 그러한 차이를 생기게 하는 세포질·유전자(DNA)·염색체의 변화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왜곡은 자연 그대로의 형과 형태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과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변이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형태가 다르게 바뀌어진다는 측면에서 변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지식이론은 '변형은 독자적이고 규범적인 규약 자체의 변형이 아닌 규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변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의미를 낳도록 의도됨과 동시에 원용례를 참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뒤틀리게 하거나 혹은 수정을 가하는 방법들이 적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형은 객체성과 정체성의 부정 혹은 이탈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용인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 문학, 건축, 미술 등 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변형은 기존의 규범 또는 틀을 해체하거나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의 발견 또는 독창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한 곡의 주제를 다른 곡의 주제로 쓰기 위해 재료를 빌리는 것이 흔했는데, 기존에 있던 곡을 변형해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음악가로 존경을 받았다("르네상스", 2002). 이처럼 변주곡을 비롯하여 본래의 연주와는 약간 다른 형태, 즉 의음기법(擬音技法)·모음창법(母音唱法)·구창가(口唱歌)·솔미제이션(solmization) 등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음악변형은 기계문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달해 왔으며(변주곡, 2005), 현대 음악 장르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며 장르적 혼성을 더해 가고 있다.

문학은 말의 가변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즉 문법적, 수사적 규칙에 통달하고 그것을 변형한 언어와 문학의 사례들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유동성을 불어넣는 말의 예술이다. 촘스키(Chomsky) 이후 언어학에서 발견되어 온 문장의 구성 원리를 건축의 구성 원리와

비교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윌리엄 미첼(William Michel)은 '형태문법' 혹은 '형상문법'이라고 하는 건축 디자인 방법론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은 일차원적인 논리적 또는 자연적인 언어를 2-3차원적인 공간적인 언어에 적용한 가장 초기에 완성된 성공적인 공식적인 문법으로(미첼, 1993: xi) 과거 뿐 아니라 현대의 최첨단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다양하게 변형된 건축물의 형태를 공간적 언어로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

2. 디자인에서의 변형이론과 미적조형성

1) 형태변이론과 디자인

형태학자 우시우스 왕(Wucius Wong)은 그의 저서「디자인과 형태론(Principles of Form and Design, 1993)」에서 형태변이에 관한 분류를 기초로 하여 어떤 한 대상은 추상적이거나 재현적인 또는 기하화적이거나 유기적인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의 발견과 감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형태변이는 내부적 변이, 외부적 변이, 확장, 중복, 외형변화, 전위, 왜곡으로 구분되며 <표 1>에서 제시된 도상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우시우스, 1994: 179).

① 내부적 변이(internal variations)

내부적 전이는 속이 꽉 찬 면에서부터 빈 공간에 이르기까지 내부면적을 변화시킴으로써 형태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형태는 가늘거나 굵은 외곽선을 가질 수 있거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줄무늬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질감이나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 층을 이루거나 다른 디테일이 주어질 수도 있다.

② 외부적 변이(external variations)

형태의 외부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은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종종 내부변이는 외부

변이를 불러일으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내·외부 변이의 조합은 흥미있는 결과를 창출한다.

③ 확장(extension)

어떤 형상의 틀을 만들거나 부가 또는 연속적인 층을 쌓음으로써 형태는 경계나 중심적인 층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 확대는 어떤 사물의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키우는 방법으로 시선의 집중을 가져오며 이미지의 강화를 가져온다.

④ 중복(superimposition)

중복은 하나의 기존형태에 다른 형태가 원래의 형상을 지우지 않고 겹쳐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두 개의 형태를 계속 더 가깝게 이동시킬 때 형태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한 형태가 밑으로 깔리고 다른 형태의 일부가 지워지는 중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중복은 기존의 형태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다른 형태가 부여됨으로써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원래의 형태가 지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미를 창출한다기보다 착시나 유도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미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⑤ 외형변화(transfiguration)

형태의 일부분이나 형태전체를 재현적인 어떤 대상을 암시하도록 바꿔놓음으로써 외형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표 1>에서 원래의 L형상은 신발이나 이빨을 벌린 괴물을 암시하도록 바뀌어져 있는데, 이러한 외형변화는 생명이 없는 사물 또는 추상적 관념에 생물적 성질 또는 특성을 부여한다.

⑥ 전위(轉位, dislocation)

형태는 둘이나 그 이상의 부분들로 절개되거나 파열될 수 있으며, 이 때 전위현상이 생겨난다. 이처럼 위치를 바꾸는 전위는 형태가 분리 파괴되면서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하는

<표 1> 형태변이론을 적용한 L자의 변형 예 (출처: 우시우스 왕, (1994), 디자인과 형태론)

내부적 전이	외부적 전이	확장	중복	외형변화	전위	왜곡

경우와 초현실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위치전환법의 경우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장소에 오브제를 배치시킴으로써 기상천외함과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⑦ 왜곡(distortion)

형태가 지닌 높이와 폭의 비례를 바꿈으로써 원래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정방형 격자를 중복시켜 놓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대각적인 왜곡, 곡선적 왜곡, 또는 기타 다른 왜곡이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2) 형태문법론과 디자인

윌리엄 미첼은 '형태문법' 혹은 '형상문법'으로 불리는 건축 디자인 방법론을 최초로 고안한 학자로, 촘스키(Chomsky) 이후 언어학에서 발전되어 온 문장의 구성 원리를 건축의 구성 원리와 비교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법의 대응관계가 건축을 만들어내는 형태요소와 형태문법과 상응한다고 가정하고(미첼, 1993: xi)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형태문법(Shape Grammar)은 그 형태 내 가장 단순한 기본 모듈에서 시작하여, 특정 문법 혹은 논리에 따라 기본 모듈이 가지고 있는 점, 선, 면의 첨가와 삭제, 병합 등에 의하여 파생적인 형태가 생성된다는 이론이다(Knight, 1994:37). 형태문법에서 표현되는 비언어적이고 그래픽적인 매체는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인지하고 표현하는 그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매체와 같은 것으로, 형태문법은 구성과 스타일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형태문법에서의 변형원칙은 규칙의 추가, 규칙의 제거, 규칙의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칙의 제거는 기존의 형태들이 갖고 있는 규칙을 제거하는 것이며 둘째, 규칙의 추가는 한 번 반복되는 규칙에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안하는 것이고, 셋째 규칙의 변화는 규칙의 제거 또는 추가도 아닌 전혀 새로운 변형을 뜻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형태 문법을 생성하기 위해 적용되어진다.

III 형태변형 기법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1. 변형과 신체미학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문화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이란 아름다운 체형이나 신체크기를 의미한다.

인류문명의 초기에는 지리학적 차이 때문에 미의 다양성이 존재했지만 20세기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체에 대한 연구들은 현대 사회에서 신체가 가지는 의미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신체 이미지의 발달 등을 다룬다(캐시, 2000: vii). 클라크(Clark)와 앤 홀랜더(Anne Holleander)는 신체를 범문화적인 현상의 증거로 인식하였는데, 홀랜더(Hollander)는 특히 문화적으로 확립된 미적 편견은 예술적인 능력과 의도, 예술가의 특유한 편애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정하였다(Koda, 2004: 8).

문신, 상흔, 바디페인팅, 피어싱, 화장 등 여러 신체변형의 방법들은 특정 문화권에서 규정하는 신체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명이 낙후한 곳은 문신, 피어싱, 제거, 상흔 등 신체 자체의 변형을 통한 이상적 미의 기준 달성이 주로 행해져 왔으며 반대로 문명이 발달된 곳은 코르셋과 같은 의복을 통한 신체변형이 주로 행해져 왔다.

특정문화에서 신체의 이상형을 결정짓는 요인은 두 가지 견해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 남성의 사냥과 여성의 가사와 육아담당이라고 하는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성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향으로 생리학적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미가 신체적 매력보다는 잠재적인 성적 본능으로 인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며 젊음과 건강은 중심개념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자연적 요소가 아닌 문화적 요소가 미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두 번째 견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심미적 가치라는 것은 특정문화에 의해 주어진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베니스는 여성에게 파우더와 루즈 등의 화장을 허용하였지만 청교도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파우더와 루즈를 바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란함을 암시했다(Koda, 2004: 9).

신체의 미적조형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인체의 비례를 왜곡시켜 주술적인 상징성을 나타내던 2만여 년 전의 고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와 아프리카의 원시 미개 부족 사회에서 행해진 신체변형,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의 신체장식은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형태의 변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부터는 의복을 통한 신체의 미적조형성의 발견이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상적인 인체의 비례를 표현하기 위해 황금비율을 통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로마시대의 미켈란젤로(Michelangelo)는 「다비드(David)」를 통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였다. 이후 기독교적 교리가 시대를 지배했던 중세에는 종교적 영향으로 인체를 평면적으로만 묘사하였으며 뿔렌드와 어깨의 부피양감을 확대한 우뿔랑드 등이 신체적 미의 변형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 인체 해부가 시작되면서 정확해진 인체묘사가 이루어

졌으며 이 시대부터 모래시계형 신체는 여성적 미의 이상형을 보여주기 위해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예술과 인간”, 2006). 이상적 몸의 가장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완성형인 ‘백인남성으로서의 인간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19세기에 서구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유럽인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이러한 서구적 몸의 우위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진중권, 2006).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서 이상적인 신체미는 변화해 왔으며, 여기서 의복의 메카니즘은 신체 부분을 변형한다. 패션사를 통해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인체의 이미지에 대한 실험적인 해체와 왜곡, 그리고 재형성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면서(Koda, 2004: 11), 인체와 의복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더욱 공고해졌다.

2. 형태변형론 관점에서 살펴본 현대 패션디자인

패션의 근간은 의복이 걸쳐지는 목적과 대상이 되는 인간으로서, 인체의 형태와 실루엣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디자인이 기본 공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미감의 변화는 인체 각 부분에 대한 미의식을 낳고 어느 한 부분을 다른 곳에 비해 더 강조하거나 은폐 또는 확대 축소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체의 형태를 왜곡변형하기도 한다. 유행의 흐름은 이러한 강조점의 이동에 따른 결과로서, 패션은 주어진 시대와 문화에서 규정하는 이상적인 신체미가 지니는 특성을 가지도록 변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패션 트렌드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기술 발달 그리고 개성 중시로 인해 기존의 의복형태와는 전혀 다른 충격과 의외성을 주는 새로운 디자인들이 신진 디자이너에 의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의 기본공식을 깬 디자인들은 새로운 미의식을 보여준다.

다음은 우시우스 윙(Wucius Wong)의 형태변이론과 윌리엄 미첼(William Michel)의 형태문법론에서 구분한 변형의 원칙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 형태변이론과 패션디자인

(1) 내부적 변이(internal variations)

디자인 조형원리에서 내부적 전이는 속이 팍 찬 면에서부터 빈 공간에 이르기까지 내부면적을 변화시킴으로써 형태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패션디자인에서는 텍스타일에서의 여러 문양이나 절개선 등에 의한 색상 및 소재간의 대비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태는 가늘거나 작고, 또는 굵거나 큰 여러 가지 세부 형태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또한 수에 있어서도 형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줄무늬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질감이나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 층을 이루거



〈그림 1〉 Yeohlee, 04 S/S(Fashion and textiles, p.68)



〈그림 2〉 Comme des Garçons, 1982(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p.20)

나 다른 디테일이 주어질 수도 있다(우시우스, 1994: 179). 단색의 무지를 줄무늬 또는 여러 다른 무늬로 변경하면서 형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색분할·면분할, 혹은 이플리케나 퀴팅 등의 기법을 통한 표면처리의 변화는 디자인의 다양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착시를 통한 체형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림 1〉의 윌리(Yeohlee)가 디자인한 그린색의 실크 드레스는 패턴 내에 다양한 구성선을 이용하여 면분할과 색분할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심플한 실루엣에 디자인의 흥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질감이나 다른 패턴을 지닌 다양한 패브릭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효과를 주는 방법은 형태 내부의 변화를 통한 디자인 변형방법으로 여러 작품에서 보여진다. 〈그림 2〉의 쥘리엥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검은색 니트는 디자인 형태의 내부적 요소, 즉 구멍을 뚫으로써 팍 찬 공간과 빈 공간의 대조를 통한 면적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니트 소재가 주는 질감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라이크라, 라텍스, 나일론과 같은 바디 컨셔스 소재는 제2의 피부처럼 바디를 압박함으로써 텅 빈 공간을 추출하는데, 이들 소재는 주로 디자인 내부의 선에 변화를 줌으로써 형태변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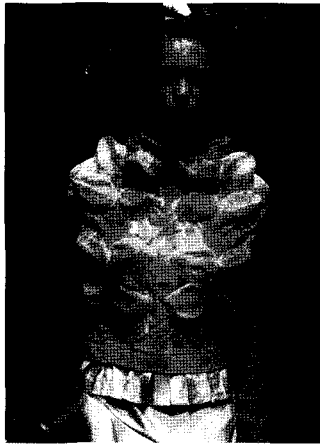
메이크업에서 눈을 더 크게 보이게 라인을 그려 넣거나 어두운 명암을 넣어 전체적으로 작게 보이게 하는 것, 또는 입술을 크게 또는 작게 그리는 것 또한 얼굴이라고 하는 한정된 크기의 면적 안에서 내부 요소들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형태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2) 외부적 변이(external variations)

형태의 외부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은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때때로 내부변이는 외부변이를 불러일으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림 3〉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드레스



〈그림 3〉 Alexander McQueen(The fashion of Architecture, p.9)



〈그림 4〉 Yoshiki Hishinuma, 02/03A/W (Techno Textiles, p.129)

내부의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구성된 둥근 원은 드레스의 내부표면을 흥미롭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원의 어울림으로 생겨난 윤곽선이 스커트의 헴 라인을 장식함으로써 드레스 형태의 가장자리를 함께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4〉에서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는 외계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띠는 릴리프 표면을 얻기 위해 열처리한 합성섬유로 작업했는데(Clarke & O' Mahony, 2006: 129), 소재의 표면에 난 요철은 의복의 가장자리와 외곽선에 영향을 주어 내부변이를 통한 외부변이를 가져온다.

(3) 확장(extension)

패션에서 확장기법을 통한 변형 역시 시각디자인의 조형 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상의 틀을 만들거나 부가하거나 또는 연속적인 층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서양복식사에서 볼 수 있는 스커트 버팀대나 레그 오

브 머튼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확장된 소매, 그리고 현대의 하이힐처럼 다양한 시대에서 여러 도구들은 형태의 확장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 〈그림 5〉의 「슈퍼맨(Superman)」으로 불리는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의 슈트(Koda, 2004: 43)는 어깨 끝이 확장됨으로써 남성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6〉의 미치코 코시노(Michiko Koshino)의 작품 「부풀려지는 드레스(Inflatable dresses)」는 건축에서 팽창 가능한 얇은 막의 출현으로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다. 코시노(Koshino)는 엉덩이 주위의 볼륨을 만들기 위해 공기를 주입한 구조물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드레스의 내부구조의 변화를 통해 의복을 확장한 예로서 디자인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보여주며 형태가 지닌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7〉은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이 「지오폰트릭스(Geotropics)」라는 테마 아래 발표한 패션작품으로 흰 슬라이브리스 원피스 위에 여러 번 겹쳐진 더 작은 패턴으로 인해 원래의 형태는 더 강조되며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 전이되었다. 〈그림 8〉의 보디카(Boudicca)는 현대 여성의 실루엣을 반영하는 봉제선없는 몰딩된 바디스를 이중 열가소성 폴리에스터를 이용한 넌우븐(non-woven) 섬유로 작업했다. 이것은 유전자 복제처럼 신체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몰딩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가 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키우는 방법은 특이함으로 인해 시선의 집중을 가져오며 이미지의 강화를 가져온다.

(4) 중복(superi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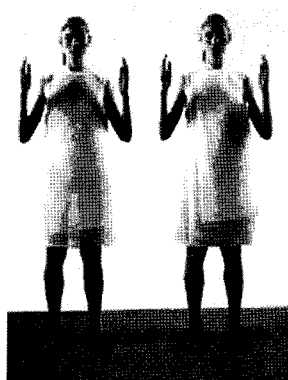
하나의 기존형태에 다른 형태가 원래의 형상을 지우지 않고 중복될 수 있는데, 〈그림 9〉의 프레디(Freddie)가 디자인한 네 개의 소매가 달린 스웨터는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착용되는 소매가 달라진다(Black, 2002: 134). 이러한 중복은



〈그림 5〉 Pierre Cardin, 1971 (extreme beauty,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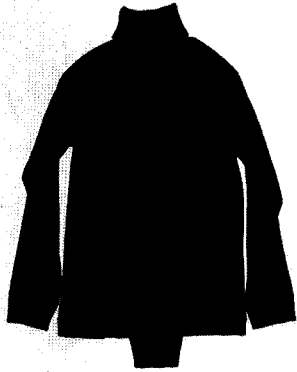
〈그림 6〉 Michiko Koshino, 1990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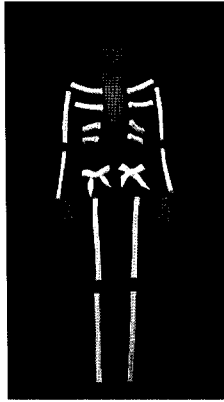
〈그림 7〉 Geotropics, 99S/S (Hussein Chalayan, p.61)



〈그림 8〉 Boudicca 98S/S (Techno Textiles, p.112)



〈그림 9〉 Freddie Robins, 'Fourway', 1997(Knitwear in fashion,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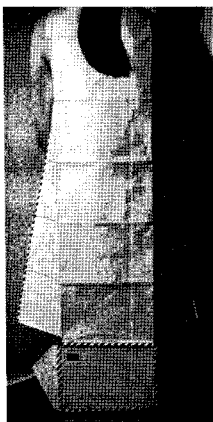
〈그림 10〉 Victor&Rolf, 99S/S (Fashion at the edge, p.46)

비록 같은 요소를 추가한 것이지만 실제 인체의 형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전혀 의외의 발상을 보여준다. 〈그림 10〉의 「죽음(Dead)」이라는 명칭의 블랙 드레스 코트는 빅터 앤 롤프(Victor&Rolf)의 디자인으로 테일러드 슈트재킷에 인체의 골격을 단순화시킨 장식물들이 의복의 목관, 소매 및 바지 부분에 스티치되어 달려있다. 원래의 의복형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빠르고 하는 전혀 의외의 부착물을 첨가함으로써 중복에 의한 형태변화를 보여준다. 유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블랙 앤 화이트 컬렉션은 판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시리즈로서 만든 것으로 디자이너가 지닌 비전을 보여준다(Evans, 200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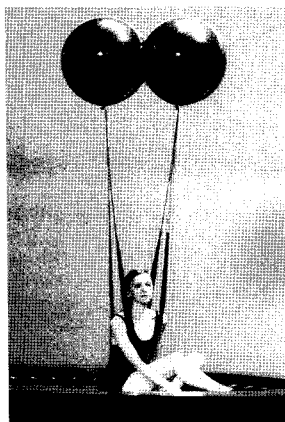
(5) 외형변화(transfiguration)

형태는 그것의 일부분이나 형태전체를 재현적인 어떤 대상을 암시하도록 바꿔놓음으로써 외형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림 11〉의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이 디자인한



〈그림 11〉 Hussein Chalayan, 99A/W (The supermodern wardrobe, p.117)



〈그림 12〉 Hussein Chalayan, 03A/W (Hussein Chalayan, p.141)



〈그림 13〉 Lucy Orta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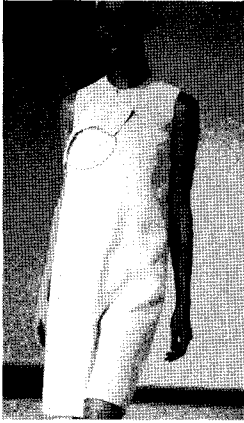
「항공우편 의복(Airmail Clothing)」은 레베카(Rebecca)와 마이크(Mike)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한 작품으로서 봉투로 접어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 한 이 옷은 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는 종이 지닌 쓰기와 접기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직물로서의 견뢰도와 세탁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드레스는 누가 봐도 우편봉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구체적인 오브제를 암시하도록 한 것은 외형변화를 통한 형태변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과 환상 사이의 갭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작품은 전이가능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Chalyan, 2005: 120).

〈그림 12〉 또한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작품으로서 「관계 탐구(Kinship Journey)」라는 이 디자인은 모델이 입고 있는 의복의 어깨끈을 늘려 두 개의 커다란 벌룬에 매달았으므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연출하고 있다. 루시 오르타(Lucy Orta)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안하기 위해 예술적인 표현작업을 행한 디자이너로서, 〈그림 13〉의 의복과 텐트를 결합한 디자인은 패션과 건축물의 경계를 해체한 것으로 여기서 의복은 안식처와 옷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보유하며, 이동가능성과 사회적 공간을 위한 은유가 된다(Quinn, 2003: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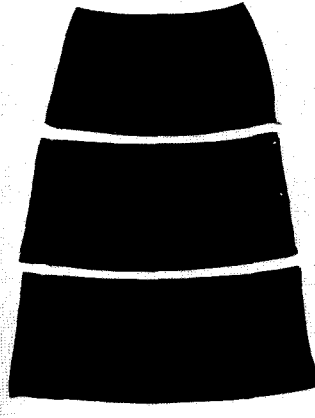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인 변종은 인간이 원래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과 특징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 존재 형태를 창시하며, 신체를 지각한 뒤 형태를 변형 과장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패션은 외형적 변이를 통한 다른 여러 가치를 암시함으로써 작가의 이상을 제시한다.

(6) 전위(dislocation)

패션디자인에서 전위는 패턴의 분리나 절개를 통해 생겨난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이 디자인한 「지오토프 라픽스(Geotropics)」라는 명칭을 지닌 〈그림 14〉의 작품은 슬



〈그림 14〉 Hussein Chalayan, 99S/S (Hussein Chalayan, p.59)



〈그림 15〉 Patrick Cox, 00S/S (The Supermodern Wardrobe, p.27)



〈그림 16〉 Thierry Mugler (현대인과 패션, p.87)

리브리시 원피스의 오른쪽 어깨 및 진동의 두 겹으로 된 부분을 박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가슴위로 늘어뜨림으로써 위치의 전위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전위를 통한 변형은 새로운 공간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공간의 변화는 미적 체험에 있어서 3차원 입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15〉의 패트릭 콕스(Patrick Cox)의 작품은 「조각(Pieces)」이라는 컬렉션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 스커트의 조각은 지퍼에 의해 연결되어지며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연결 또는 절개되는 부위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위를 통한 변형은 하나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7) 왜곡(distortion)

패션디자인에서 왜곡의 방법은 여성의 코르셋이나 스커트 버팀대, 또는 남성복에 주로 사용해진 어깨 패드 등을 통

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인체의 한 부분을 확대 또는 축소함으로써 원래의 폭과 높이를 변형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시우스 왕(Wucius Wong)이 정의한 왜곡의 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정의한 것처럼 정방형 격자를 중복시킨 다음 이것의 폭과 높이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대각적인 왜곡, 곡선적 왜곡, 또는 기타 다른 왜곡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 디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16〉의 티에리 뮈글리(Thierry Mugler)의 디자인은 가로와 세로로 이어진 격자무늬 선들이 인체의 라인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 있는데, 이는 착시를 통한 시각적 왜곡이다.

2) 형태문법론과 패션디자인

언어가 인간에게 의사소통의 주요한 수단이 되듯이 의복 또한 그것이 지닌 다양한 형태와 미적 가치를 통해 착용자를 드러내는 도구로 역할한다. 여기서 패션의 다양한 면들 즉, 스타일과 룩, 착용법 등은 하나의 체계적인 문법을 갖추고 있다. 규칙은 의복 디자인 원리에서 정의되는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고전적인 스타일,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 매너를 갖춘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 규칙의 변화는 의복의 착용과 스타일의 분화를 설명하는데 주로 응용될 수 있다.

(1) 규칙의 제거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관습이나 심플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유행이 지속되는 클래식 아이템들은 디자인의 규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 또는 개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패션 디자인의 형태적 측면에서 고전적인 남성복 규범을 파괴한 디자인, 예를 들면 테일러드 재킷과 같은 클래식 아



〈그림 17〉 Alberto Biani, 02-03 A/W(Collezioni, N.88, p.20)



〈그림 18〉 Lucy Orta, 2000(Sportstech, p.85)

이템에서 라펠을 제거한 것은 규칙의 제거를 통한 변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의 파괴는 일탈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며 디자인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옷입는 방식 역시 오랫동안 굳어진 관습에 의해 하나의 규칙이 형성되는데,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It happened one night, 1934)」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이 내의를 입지 않고 맨 몸 위에 드레스 셔츠를 착용한 것은 의복 착용 순서의 규칙을 이루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기존의 옷입기 방식의 변화는 규칙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칙의 모호함에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모를 통한 남녀의 성구분이 모호해지고 성을 분명히 구분하던 의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여성이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남성이 열은 화장을 하거나 스커트를 착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니섹스 룩(unisex look), 앤드로지스 룩(androgynous look), 크로스 오버 룩(crossover look) 등은 젠더(gender) 규칙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림 17>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또한 캐주얼과 비즈니스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도 의복 코드 해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남자 정장슈트 안에 착용되어 온 넥타이는 캐주얼의 유행으로 생략되어지기도 한다.

의복 자유와 개성화, 편의주의 생활로의 변화, 그리고 의례에 있어서 품목의 간소화 등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규칙의 제거에 해당된다.

(2) 규칙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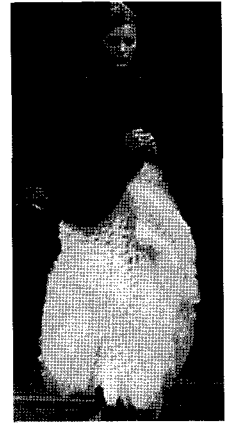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인접하고 교류하면서 사회는 점차 다양해지고, 스포츠와 레저의 발달은 의복의 분화 발달을 가져왔다. 이는 의복규범에 새로운 규칙의 추가 현상을 불러왔는데, 예를 들어 특수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개발된 특수 기능복, 스마트 웨어(smart wear), 입을 수 있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의복의 개발은 의복 착용이나 활용에 있어서 추가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며, 이는 규칙의 추가를 의미한다. <그림 18>의 루시 오르타(Lucy Orta)의 디자인은 다이빙 장비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구멍과 대피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이다. 고기능성을 지닌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비바람에 견딜 수 있고 절연성과 흡수성,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착용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규칙의 변형

사회에 저항하는 하위문화 집단은 외모와 패션을 통해 그들의 가치와 사상을 표방하며, 이 때 기성사회의 규범을 변형한다. 펑크족의 과장된 헤어와 패션 그리고 메이크업을 비롯하여 하위문화를 규정하던 요소들은 기존의 디자인 규범과 형태를 변형한 것으로 이들 스타일들은 현대 패션에서 그



<그림 19> Tessuti, 05
A/W(Collezioni, N.104, p.361)



<그림 20> Watanabe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85)

의미가 해체되면서 하이패션에 편입되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은 규칙의 제거를 통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해석하기 어려운 아방가르드 패션, 예를 들면 믹스 앤 매치(mix & match), <그림 19>에서 보이는 속옷의 겉옷화와 같은 옷입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패션에서 보이는 앞뒤 역전, 겉과 속의 역전 등은 새로운 위치로의 전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규칙의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IV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변형의 조형적 의미

1. 복합성을 통한 다중변형

일반적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형태변이는 내부적 변이, 외부적 변이, 확장, 중복, 외형변화, 전위, 그리고 왜곡 중 어느 한 가지 기법만을 취하기보다 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법들이 함께 사용되어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형이 창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0>의 와타나베(Watanabe)의 작품은 신체를 둘러싸면서 맞추어지게끔 접혀지고 확장될 수 있는 개방형이 되도록 구성되어졌다. 노란색 드레스의 소재는 공간격자 형태의 3차원적 입체감을 지니도록 구성된 것으로, 먼저 내부적 변이가 이루어진 후 이것이 스커트의 실루엣 즉 윤곽을 변형한 외부적 변이가 이루어진 작품으로써 착용자의 바디라인이나 착용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 작품은 내부적 변이, 외부적 변화, 확대라고 하는 세 종류의 변형 기법이 응용된 것으로 디자인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너 개인의 미학적 가치나 취향은 형태변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지며 이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작품제작의 바탕이 된다. 마찬가지로 의복착용이나 스타일의 변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는 단계에서 둘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여 전혀 색다른 스타일을 창안함으로써 형태변화의 다양성과 무한재생성을 유추할 수 있다.

2. 혼돈을 가장한 형식미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고전적인 미의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의 다양한 디자인들은 현 사회의 복잡함과 혼돈을 암시하는 매개체로 역활한다. 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시공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이러한 감각을 통한 지각의 불명료함은 초월적인 새로운 미적 범주로 확대되며,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패션으로 이어진다.

변형을 통한 디자인은 협의의 '고전적 형식에 의한 완전성, 규칙성, 법칙성의 미' 라기보다 광의의 미 즉 '감성적, 직관적 미'이며 직감적 품질이 여러 가지 뉘앙스를 띠고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김민자, 2004: 204). 비록 디자이너의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의외의 디자인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외견상 무형태, 불균제, 부조화의 불형식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변이론과 형태문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법칙성과 규칙이 내재함으

로써 일종의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3. 새로운 유행의 토대

급진적인 사고를 지닌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실험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확립된 미적 취향에 도전함으로써 충격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시도하게 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낮익은 모습으로 변하면서 스타일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디자인에서의 법칙, 즉 캐논(cannon)은 다양하게 변형된 디자인들로 언제나 논쟁이 되고, 여러 디자이너들이 매 시즌 선보이는 다양하게 변형된 새로운 스타일들은 기존 스타일과의 차별화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신선한 자극과 충격으로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킨다. 즉, 가공이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가장자리, 접고 비틀어서 인체의 실루엣을 왜곡한 디자인 등 외형적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패션 이외의 요소로부터 차용한 소재들은 개인 디자이너의 심미적 취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유포어를 불러일으키거나 충격을 주기도 하며 참신성으로 연결되어 시대적 트렌드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이처럼 패션은 새로운 미의식을 시도하는 장으로서,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실험하고 발현하는 장소이자 매체로 활용되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부여한다.

<표 2>는 형태변형 원리를 적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징과 조형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형태변형 원리를 적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징 및 조형적 의미

	종류	디자인 원리	디자인 특징	조형적 의미
형태변이론	내부적 변이	내부면적 변화 공간대조	다양한 문양의 텍스타일 디자인 절개선, 구성선의 변화를 통한 색분할/면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성을 통한 다중변형 • 혼돈을 가장한 형식미 • 새로운 유행의 토대
	외부적 변이	윤곽선/가장자리 변화 -내부표면변화와 연계	의복표면의 요철변화가 실루엣의 변화로 연결 다양하게 변형된 헐라인	
	확장	형상틀을 부가 연속적인 층 축적	패드/심, 특정구조물을 사용한 확장 패턴의 겹쳐짐을 통한 확장 오리지널 형태의 복제 및 크기 확대	
	중복	개체별 차이를 인정하는 겹쳐지기	의외의 오브제를 부착 및 첨가	
	외형변화	형태의 부분/전체가 재현적 대상 암시	다른 사물의 이미지 결합을 통한 타자 재현 의복과 건축물과의 결합을 통한 다기능성 보유	
형태문법론	전위	형태의 분리나 절개를 통한 이동	패턴의 절개나 분리를 통한 위치 이동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변신가능	
	왜곡	착시를 통한 시각적 변형	옵티컬 패턴을 통한 인체 라인 왜곡	
	규칙의 제거	디자인 규칙 제거 의복 착용 규범 제거	고전적 아이템의 필수 디테일 요소 제거 캐주얼과 비즈니스복/젠더 구분 의복 모호해짐	
	규칙의 추가	새로운 규칙 추가로 새로운 형태 창조	의복의 분화발달-특수기능복, 스마트 웨어 등 새로운 의복지식 습득이 요구	
	규칙의 변형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하위문화집단의 독창적 스타일 아방가르드 스타일	

V 결론

본 연구는 예술에서의 조형원리가 복식에도 적용된다든 관점에서 인체가 지닌 본연의 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킨 시대적 미의식과 개성을 나타내는 현대 패션 디자인을 변형원리를 토대로 조사 분석하였다.

우시우스 왕(Wucius Wong)의 디자인 조형을 위한 형태 변이론은 내부적 변이, 외부적 변이, 확대, 중복, 외형변화, 전위, 왜곡으로 변형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패션디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내부적 변이는 소재 자체의 변형이나 내부구조선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며, 외부적 변이는 율곡선의 변형에 의해, 확대는 특정부위를 확대하거나 같은 요소를 반복해 놓음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복은 의외의 오브제를 첨가 또는 부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의 변신을 이루며, 외형변화는 전혀 다른 사물과의 결합을 통해 재현적 대상을 암시한다. 전위는 패턴의 절개나 분리를 통한 위치이동을 통해 형태를 변형하는 것으로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하고, 왜곡은 착시를 통한 원래 형태의 시각적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형태문법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규칙의 제거, 규칙의 추가, 규칙의 변형은 옷입기와 스타일, 그리고 룩의 변화와 연관되어져 주로 나타났다. 규칙의 제거는 고전적 아이템을 이루는 디테일 요소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의복 착용 순서의 규칙 중 일부가 생략되는 것, 그리고 성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의복 스타일의 유행 현상과 관계있는 것으로 의복 자유와 편이주의 생활로의 변화, 그리고 젠더 규칙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다. 규칙의 추가는 특수 기능복이나 스마트 웨어와 같은 의복의 분화 및 발달로 새로운 의복의 착용규범이나 지식 습득이 요구되는 현상과 연관되며, 마지막으로 규칙의 변형은 하위문화 집단의 독창적인 스타일이나 현대의 아방가르드한 스타일 등 기존의 스타일과 별 연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등장과 관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형태변이론이나 형태문법론의 측면에서 분석한 현대 패션디자인이 지니는 조형적 의미는 복잡성을 통한 다중변형, 혼돈을 가장한 형식미, 그리고 새로운 유행의 토대로 나타났다. 첫째, 복잡성을 통한 다중변형은 두 가지 이상의 변형기법들이 서로 결합되거나 착용에 의해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것이고, 둘째,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고전적인 미의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의 다양한 디자인들은 외견상 무형태, 불균제, 부조화의 불형식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법칙성과 규칙이 내재함으로써 일종의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셋째, 신진디자이너

의 기발하고 독특한 디자인들은 감각의 익숙함을 유도할 수 있는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유행의 토대가 되며 이는 새로운 미의식의 변화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한 패션은 그것이 지니는 조형적 형태가 때로는 추의 미적 범주와도 연관되어지며 미의식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디자이너의 발상에 따른 이들 구조적 실험에 의한 작품은 새로운 미의 존재를 구현하는 조형실험으로서 소비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복식을 제작하는 과정이 예술이라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는 분명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인간이 추구하는 미적 기준의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살피고 한 가지를 선택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변이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패션들을 조형원리에 따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발상하고 구체화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노훈, 윤민희. (1999). *디자인 문화와 생활*. 서울: 도서출판 예경.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서울: 교문사.
-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 서울: 도서출판 예경.
- 라우어, 데이비드 A. (1979). *조형의 원리*. 이대일 옮김 (1985). 서울: 미진사.
- 르네상스 미사곡을 이해하는 지름길 I. (2002, 5. 28). 음악과 음반. 자료검색일 2006, 9. 11, 자료출처 <http://www.polyphony.co.kr>
- 런튼, 노버트. (1994).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옮김 (2003). 서울: 도서출판 예경.
- 미첼, 윌리엄. (1990). *건축의 형태언어*. 김경중, 남순우 옮김 (1993). 서울: 도서출판 국제.
- 변주곡. (2005, 4. 2). *좋은 음악사전*. 자료검색일 2006, 9. 16, 자료출처 <http://www.um-ak.co.kr>
- 십홍, 杉山明博. (1981). *조형형태론*. 김인권 옮김 (1986). 서울: 미진사.
- 우시우스 왕. (1993). *디자인과 형태론*. 최길열 옮김 (1994). 서울: 도서출판 국제.
- 예술과 인간 1부 정리: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2006, 7. 30). BBC 다큐. 자료검색일 2006, 8. 30, 자료출처 <http://ohzara.com>
- 진중권. *몸과 예술*. 미학에세이. 자료검색일 2006, 9.30, 자료출처 <http://www.spacebeam.net>

- 캐시, 토머스 F., 프루진스키, 토머스. (1990). 바디 이미지: 발전, 일탈, 변화. 임숙자 외 옮김 (2000). 서울: 교문사.
- 헬러, 스티븐 & 앤더슨, 게일. (1991). 그래픽 워트. 박영원 옮김 (1996). 서울: 도서출판 국제.
- 현대인과 패션 편찬위원회. (2003). 현대인과 패션.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New York: Victoria & Albert Museum.
- Chalyan, H. (2005). *Hussein Chalayan*. Groningen: Groninger Museum.
- Clarke, S. E. B., & O'Mahony, M. (2006). *Techno textiles 2: Revolutionary fabrics for fashion and design*. New York: Thames & Hudson.
-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ale, C., & Kaur, J. (2004). *Fashion and textiles*. New York: BERG.
- Knight, T. W. (1994). *Transformations in design: a formal approach to stylistic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visual art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Koda, H. (2004). *Extreme beaut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Mitchell, L. (2006). *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Sydney: PHM.
- O'Mahony, M., & Braddock, S. E. (2002). *Sportstech*. London: Thames & Hudson.
-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Publishers.
- Collezioni(2002). Milano: Zanfi Editori. (2002~2003 A/W)
- Collezioni(2005). Milano: Zanfi Editori. (2005 A/W)

(2006년 10월 26일 접수, 2006년 11월 30일 채택)